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7(土)	18(日)
	
구름조금 3/13℃	구름조금 1/13℃

News

- 빅마트 롯데쇼핑에 매각 ②
- 천주교 광주대교구 70돌 ③
- 최경주 첫날 공동 9위 ⑬



Jeollado

- 그사람-이기홍 변호사 ⑦

Entertainment

- 지역방송사 콘서트 인기 ⑧
- 영화로 떠나는 이탈리아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키조개 ⑬



우일제일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진남과학대  
http://www.jinam.ac.kr



개통 앞둔 1.84km 압해대교

목포시 연산동과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를 잇는 길이 1.84km의 압해대교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00년 6월 착공된 이 연륙교는 마지막 상판 연결공사만 남겨놓고 있으며 올 연말 임시 개통될 예정이다. 국비와 도비 2천59억원이 투입된 이 다리가 완공되면 섬지역 관광활성화와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시 연산동과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를 잇는 길이 1.84km의 압해대교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00년 6월 착공된 이 연륙교는 마지막 상판 연결공사만 남겨놓고 있으며 올 연말 임시 개통될 예정이다. 국비와 도비 2천59억원이 투입된 이 다리가 완공되면 섬지역 관광활성화와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경남 원경고 정겨울군이 합천군수에게 보낸 편지

“광주는 우리 조국 아닌가요”

일해공원 추진 5월 학살 정당화...합천 시는게 부끄럽다

경남지역 한 고교생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日海)공원' 명칭에 반대하며 합천군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대안학교인 원경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정겨울(3학년)군은 최근 군이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 명칭을 '일해공원'으로 변경키로 하자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심의조 합천군수에게 보냈다.

정군이 보낸 편지 내용이 인터넷 매체는 물론 포털사이트에 급속히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전문이 오르면서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정군은 '광주는 우리의 조국이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 체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라든지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했다는 사실 등등에 대해 깊이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저희는 광주 금남로에서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이 총에 맞아 피를 흘



〈정겨울군〉

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심의조 군수와 함께  
5·18국립묘지 참배  
역사를 얘기 하고파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군은 "어디에 가서 합천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합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셔서 정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역사가 무엇인지, 참된 도리가 무엇

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말로 편지를 맺었다.

정군은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군수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틀린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군은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친구들과 수차례 토론을 거치는 등 심사숙고했으며,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해공원을 만든다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우리가 배워온 광주민주화운동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심 군수와 함께 망일묘지를 참배해 무엇인 옳고 그른지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군은 조만간 5·18기념재단으로부터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각종 영상물을 받아 학생들과 돌려본 뒤 토론회를 갖고 공원 개명 반대 서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목포 흥익저축銀  
6개월 영업 정지

광주·전남 저축銀 중 최대...금감위 부실기관 지정

광주·전남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흥익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을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 회의를 열어 흥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흥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흥익저축은행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흥익저축은행은 지난달말 현재 고객수 3만5천881명에 자산규모 6천500억원으로 광주·전남지역 9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크고 업계 순위로는 25위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39%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며 가지급이 개시되면 통장과 도장, 신분증,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을 갖고 흥익저축은행에 찾아가면 된다.

흥익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저축은행의 예금액은 6천57억원으로 이중 5천만원 초과 예금은 33개 계좌에 56억 9천만원이다.

흥익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오모씨는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출신으로 지난해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인 양모씨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치권 “한·미 FTA 졸속”

협상중단론 대두...비준 과정 진통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익을 훼손하는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협상중단론이 대두하고 있다.

한미 FTA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국회의원들은 16일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제히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반(反) FTA’ 연대 움직임은 소속 정당의 벽을 뛰어넘는 양상이어서 국회 비준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범(汎)여권 대선주자인 정동영·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천정배 의원은 일제히 현 정권 임기 안에 협정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제 목소리를 내고 나서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한달여의 집계를 끝낸 김근태 전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 동의를 넘겨야 한다. 시중에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한미 FTA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확인되면 (인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던 때처럼 낡은 방식으로 국익을 협박하고 있고,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측 시안에 따라 3월말에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의원 37명과 함께 발표한 한미 FTA 협상중단 촉구 성명에 참여했다. 천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 우리당 홍미영,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생모임 김태홍 의원 등은 “한미 FTA 협상이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무역촉진권한(TPA)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무인재난 개입은  
새로운 첨단보청기 기술의 모토이다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청기